



2015 WKBL 신입선수 선발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6개 구단에 입단한 13명의 신입선수들이 미소를 지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끝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안혜지, 김진영, 이하은, 김연희, 황승미, 홍소리, 김민정, 박진희, 이수연, 김아름, 이윤정, 김다현, 이수경. 뉴스스포츠

1순위 안혜지 “키 163cm 빼고 무결점”

2015 WKBL 신입선수 선발회·KDB생명, 예상 1순위 지명

참가자 중 최단신 볼구 최고의 볼핸들링 U-17세계농구선수권 대표팀 주축 활약 안세환 감독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 안혜지 “이미션 선배처럼 최고가드 꿈”

‘2015 WKBL 신입선수 선발회(드래프트)’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WKBL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뽑는 이번 행사에서 1순위 지명권을 손에 쥔 KDB생명의 선택은 동주여고 3학년 안혜지(17·163cm)였다. 고교무대에서 통통 튀는 플레이로 주목을 받았던 안혜지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만큼이나 당찬 포부로 프로무대에 도전장을 던졌다.

●안세환 감독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강력한 1순위 후보는 송의여고 포워드 김진영(18·

177cm)이었다. 추천을 통해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KDB생명 안세환(48) 감독은 예상 밖의 선택을 했다. 안 감독은 가드 안혜지의 이름을 불렀다. 안혜지는 이번 드래프트 참가자 중 최단신 선수였다.

안 감독은 “드래프트 현장에 오기 전부터 안혜지 선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한다’는 명언이 있지 않은가. 신장은 작지만, 자신의 핸디캡을 커버할 수 있는 심장(단단한 마인드)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팀에 돌파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 투입 기회가 되면 곧바로 경기가 기용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즉시전력화 구상도 내비쳤다.

안혜지는 동주여고의 간판 포인트가드로, 고교 수준에선 최고 수준의 볼핸들링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월 열린 U-17(17세 이하)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 2015 WKBL 신인 드래프트 결과

구단	1라운드	2라운드
KDB생명	안혜지 (동주여고 · 163cm)	이수경 (운양여고 · 178cm)
KB스타즈	김진영 (송의여고 · 177cm)	박진희 (청주여고 · 172cm)
하나위험	이하은 (분당경영고 · 183cm)	이수연 (광주대 · 178cm)
신한은행	김연희 (선일여고 · 190cm)	김아름 (전주비전대 · 175cm)
삼성	황승미 (청주여고 · 187cm)	김민정 (동주여고 · 170cm)
우리은행	홍소리 (수원여고 · 175cm)	이윤정 (수원대 · 170cm)

※우리은행 1라운드 지명권과 KDB생명 2라운드 지명권 교환. ※()는 출신고 · 기

선 센터 박지수(16·193cm·분당경영고 2년)와 함께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롤모델은 이미션! “최고 가드가 되겠다” 드래프트 후 인터뷰에서 안혜지는 고교

생답게 씩씩한 기운을 발산해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안혜지는 “이미션(삼성) 선배님의 플레이를 동경해왔다.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대표팀의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잘 하시는데, 내가 1순위로 뽑히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더 노력하고 배워서 이미션 선배님과 같은 최고의 가드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질문에는 “빠르고, 드리블 능력도 되고, 슛 감도 좋다. 내 단점은 키가 작은 것밖에 없다. 2~3년 안에 프로무대에 정착하고 싶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지는 선수가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KB스타즈는 2순위로 ‘최대어’ 김진영을 지명했고, 하나위험은 3순위로 이하은(18·183cm·분당경영고)을 낙점했다. 이번 드래프트에선 총 13명의 선수가 프로의 선택을 받았다. 이들은 올 시즌 곧바로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며, 다음달 5일 개막하는 퓨처스(2군)리그에 대거 출전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김승혁(왼쪽 사진)과 박상현은 JGTO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승혁은 남의 JGTO 투어 4개 대회 성적에 따라 남자골프 세계랭킹 10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박상현은 2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던롭피닉스오픈에 출전한다. 스포츠동아DB

KPGA 프로들 ‘투잡시대’

김승혁·박상현 JGTO 메이저 우승 조준 국내 투어 실경 열악...日투어 병행 늘어 김봉섭·홍창규는 아시아·중국 투어 도전

2014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선수들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와 아시안 투어 진출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홍순상(33·SK텔레콤), 박준원(28·코웨이), 주홍철(33), 문경준(32·휴넷), 김대섭(32·우리투자증권), 김대훈(29) 등은 11일부터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골프장 등에서 펼쳐지는 JGTO 투어 켈리파인 토너먼트 3차 예선에 출전한다. 3개의 골프장에서 나누어 열리는 3차 예선에는 30여명의 한국선수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예년과 달랐던 풍경은 국내 톱 프로골퍼들의 참여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대거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또 국내 투어 실경이 열악해지면서 JGTO 투어를 병행하려는 ‘투잡족’이 늘었다.

문경준은 11일 출국에 앞서 “많은 선수들이 투어를 병행하려는 비슷한 계획을 갖고 일본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투어 일정은 끝났지만, 일본 투어 진출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연습했다. 내년에는 국내와 일본 투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전권을 손에 넣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김승혁(28)과 박상현(31·메리츠금융)은 JGTO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올해 JGTO 투어 도카이클래식에서 첫 승을 신고한 김승혁은 13일부터 시작하는 미쓰비시 스미토모 다이헤이요 마스터스(총상금 1억 5000만엔)를 시작으로 던롭피닉스오픈(총상금 2억엔), 카시오월드오픈(총상금 2억엔), JT컵(총상금 1억5000만엔)에 출격할 계획이다. 특히 11일 현재 세계랭킹 122위라, 이번 JGTO 투어 4개 대회 성적에 따라 10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10일 일본으로 떠난 김승혁은 “올해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만큼 세계랭킹 100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다. 남은 대회에서 최소 1승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은 이번 주 국내에서 선 뒤 2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던롭피닉스오픈부터 JGTO 투어에 합류한다.

김봉섭(31·ZOTAC)과 홍창규(33) 등은 아시안 투어와 중국 투어 진출을 계획 중이다. 올 시즌 KPGA 투어 상금랭킹 20위에 오른 김봉섭은 12월까지 훈련한 뒤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안 투어 켈리파인 스쿨에서 해외 진출에 도전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힙합모자에 뽀뽀로까지 준비...KB스타즈 ‘센스쟁이’

2순위 지명 김진영 “감동이예요”

KB스타즈 서동철(46) 감독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WKBL 신입선수 선발회(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송의여고 김진영(18·177cm)을 지명했다. 서 감독은 단상에 올라 김진영에게 KB스타즈 유니폼과 모자를 전달했다.

서 감독이 건넨 모자는 평소 드래프트에서 흔히 보던 야구모자 스타일이 아니었다. KB스타즈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냅백(힙합 스타일의 모자)을 준비했다. 유망주 선수들을 뽑는 자리인 만큼 젊은 취향을 고려한 구단의 배려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 감독은 김진영과 2라운드에서 선발한 청주여고 박진희(18·172cm)에게 유니폼과 모자 외에 길쭉한 무연가를 안겨줬다. 대형 뽀뽀로였다. 드래프트가 열린 11일은 속칭 ‘뽀뽀로데이’였다. 센스 넘치는 KB스타즈의 준비성에 형식적이었던 드래프트 현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KB스타즈 구단 관계자는 “모자는 젊은 팬들을 겨냥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것인데, 신인 선수들에게도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에 준비했다. 뽀뽀로도 마찬가지다. 마칭 드래프트 날이 ‘뽀뽀로데이’여서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구단의 준비성에 깜짝 놀랐다. 우리가 농구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선수들의 기분도 남다르기는 마찬가지. 김진영은 “모자도 예쁘고, 생각지도 못한 뽀뽀로를 받아 감동을 받았다. 무척 기분이 좋다. KB와 좋은 인연이 맺어진 것 같다”며 웃었다.

KB스타즈가 선발한 김진영은 3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한농구협회장기대회 조별예선에서 한 경기에서 무려 66점이나 올린 특급 유망주다. 서 감독은 “애초부터 1순위로 점찍어왔던 선수다. 잘 키워보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KB스타즈 서동철 감독(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WKBL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2순위로 지명한 김진영에게 꽃다발과 함께 뽀뽀로를 전달하고 있다. 스냅백을 쓰고 뽀뽀로를 받은 김진영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뉴스스포츠

배상문 세계랭킹 77위...프리저던츠컵 출전 희망

세계연합팀 PGA 종료시 10위까지 출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신한동해오픈 2연패를 달성한 배상문(28·켈러웨이)이 남자골프 세계랭킹 77위로 도약하며 프리저던츠컵 출전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배상문은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81위에서 4계단 오른 77위에 랭크됐다. 신한동해오픈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 8.00을 추가해 합계 96.44(출전 대회 52개), 평균 1.8547을 기록했다.

2011년 말 30위까지 뛴 배상문의 세계랭킹은 이후 계속 하락했다. 올해 중반에는 187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0월 2014~2015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으로 열린 프라이스닷컴오픈 우승 이후 기어코

상승세로 돌아섰다. 우승으로 9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CIMB클래식 공동 5위로 81위, 신한동해오픈 우승으로 80위 내 진입에 성공했다.

세계랭킹 상승에 따라 내년 10월 6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미국과 세계연합의 골프대항전인 프리저던츠컵 출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프리저던츠컵 세계연합팀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세계연합팀 대상자 중 배상문보다 순위가 높은 선수는 애덤 스콧(호주·2위), 제이슨 데이(호주·8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21) 등 12명이다. 노승열(23·나이키골프)은 95위에 올라 있다. 프리저던츠컵 세계연합팀은 내년 PGA 투어 도이치방크 챔피언십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랭킹 10위까지 출전권을 준다. 주영로 기자

배상문 이어 박상현까지...아름다운 기부행진

최경주대회 우승 상금 중 3000만원 기부

남자프로골퍼들의 훈훈한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배상문(28·켈러웨이)에 이어 박상현(31·메리츠금융)도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했다.

최경주재단은 10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박상현이 우승 상금의 30%인 3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상현은 “최경주(44) 선배가 국내남자프로골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대회에서 우승해 기쁨이 넘달랐다. 최 선배께서 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공감했다. 특히 대회 슬로건인 ‘희망의 골프, 나눔의 굿샷’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9일에는 배상문이 제30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뒤 상금 전액(2억엔)을 불우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퐁크’ 기부를 한 바 있다. 배상문은 “주위를 돌아보니 어려운 이웃이 많았다. 상금의 일부는 최경주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대구지역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순상, 김대현, 박주혁, 이동환, 배상문, 김세현, 이민영, 배희경 등이 최경주재단에서 운영 중인 ‘베스트 버디스’ 활동을 통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경주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취지에 후배들이 공감하고 선뜻 기부해 감사하다. 국내골프계에서 이 같은 나눔이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신동빈 신인 대한스키협회장 “모든 스키인들과 소통”

제20대 대한스키협회장으로 선출된 신동빈(59) 롯데그룹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실상 종목의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스키협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출석자 만장일치로 신 회장을 제20대 수장으로 뽑았다. 신 회장은 당선 직후 취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중요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모든 스키인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트리플더블...클리블랜드 시즌 첫 연승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가 11일(한국시간) 퀸스 룬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4~2015시즌 뉴올리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18-111로 이겨 시즌 첫 연승을 거뒀다. 르브론 제임스는 클리블랜드 복귀 이후 최고의 활약인 32점·12리바운드·10어시스트의 트리플더블로 승리에 앞장섰다. 인디애나는 로이 히버트의 29점 활약에 힘입어 유타를 97-86으로 꺾고 6연패에서 탈출했다.